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교황, 신임 신앙교리성 장관 임명 “강력한 차기 교황 후보 등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일 교황청 핵심 부처인 신앙교리성의 새 장관에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대주교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교황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가톨릭 언론매체 크룩스(CruX)의 편집장인 존 알렌 주니어는 2일 이번 인사에 대해 교황이 교황청에 그의 라칭거를 심어놓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을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에 발탁해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과 맥이 닿는다는 것이다. 라칭거 추기경은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뒤를 이어 교황으로 선출돼 교황명을 베네딕토 16세로 정했다.

알렌 주니어 편집장은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며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와 페르난데스의 유대감은 폴란드 출신인 요한 바오로 2세, 독일 출신인 라칭거보다 훨씬 더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르난데스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면한 모든 중요한 교리 문제에서 비공식적인 조언자 역할을 해오며 교황의 신학적 오른팔로 불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페르난데스 대주교가 교황청 주요 부처인 신앙교리성의 새 장관으로 임명돼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단숨에 강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등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알렌 주니어 편집장은 다만 페르난데스 신임 장관이 차기 교황이 될 수 있을지는 지난해부터 건강 이상설에 시달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제까지 교황직을 수행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0세인 페르난데스 신임 장관은 아르헨티나 가톨릭대에서 신학부 학장을 역임했으며 서약 300권의 책과 논문을 저술했다. 일반적으로 교황청 장관직은 추기경이 맡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대주교는 오는 9월에 추기경으로 서임될 가능성이 크다.



### 고통을 나누면 행복이 보입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보시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시(財施)는 물질을 원인으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수행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남과 더불어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때 현재는 따뜻하고 미래는 평화스러워짐이 재보시입니다.

이때 우리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질이 모두 청정한 것, 즉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강경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 제4' 를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어떤 기대나 조건 등 이유를 달지 않고 보시할 때 진정한 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법시(法施)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궁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좋은 말씀으로 그를 편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뇌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행위가 법보시입니다. 주변에는 진리에 목말라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장황한 이론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리석음을 깨트릴 수 있는 한 마디가 아쉬운 것입니다.

물질을 보시하면 얼마간의 고뇌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베풀면 평생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에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베풀면 큰 힘을 얻고, 입을 것을 베풀면 잘 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베풀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베풀면 밝은 눈을 얻으리라.

집으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면 모두를 주는 것이고,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면 감로(甘露)를 베푸는 것이니라.

감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로는 무외시(無畏施)입니다.

무외시란 다른 생명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는 행동입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의 자애로움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 고통에 대한 애정 어린 공감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외시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여기가 끝극락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리이고, 현재를 살아 가는 모든 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논리입니다. 베풀다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대승에서 강조하는 이타적(利他的) 자비

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보시하려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보시할 때에는 마음이 흐뭇하며, 보시한 뒤에는 마음에 후회 말라. 그리하여 우리의 어린애는 죽지 않으리. 주려 할 때는 그 마음 기쁘고, 줄 때에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고 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 하라.

이것이야말로 참 자선(慈善)이니라.” (본생경)

보시는 모든 행(行)의 근원이며, 무명을 제거하고 열반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이웃과 나눔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웃을 위한 참회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보시바라밀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여 모두 깨달음의 바다에 이르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혜총스님-

그래픽=shutterstock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